

근본이 바로서야 길이 열린다.

= 대한민국의 회갑에 45세의 우리협회와 새 정부의 출범 =



寒梅山房主人 白甫
본회 통일회원

회갑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60년의 험난한 발자취

2008년, 무자년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1948년, 무자년에 건국된 지 회갑의 해를 맞이한다. 그리고 제17대 대통령을 선출하여 정권을 교체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우리 사단법인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이하 '우리법인'으로 약칭한다)는 대한민국보다 15세가 연하로서 45세의 중년이 되었다. 전국대회는 올해 49회이고 내년 2009년이면 50회의 나이테를 두르게 된다. 필자는 일제 강점 하에서 식민지 황국신민의 교육을 받고 황국소년으로 자라난 연대는 해방과 대한민국의 수립과정을 지켜보아 왔으므로 남다른 감회에 젖게 된다.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일제 강점하의 초등교육의 실상이 어떠했는가를 간략하게 소개하여 비록 분단은 되어 있지만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오늘 날과 비교하여 보여주기를 바란다.

필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은 70년 전인 1939년이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우리글을 '조선어'로 일본어는 '국어'로 배우다가 이마저 이듬해에 '조선어'는 교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학교장도 일본인이고 담임선생도 일본인이었다. 황민화정책(皇

民化政策)의 일환으로 창시개명의 강요로 우리 성을 일본식으로 두 글자로 바꾸었다. 소위 대동아전쟁(태평양전쟁, 제2차 세계대전)을 일본이 도발하여 일으키자 어린 초등학교의 학급을 군대식으로 편성하고 급장을 소위로 줄반장은 하사관으로 계급장을 종이로 만들어 달게 하고 교실에는 붉은 글씨로 미영격멸(米英擊滅)을 크게 써 붙이고 어린 우리에게까지 적개심을 부추기고 있었다.(※지금도 일본은 미국을 한자로 '米國'이라 표기한다)

전쟁을 일으킨 12월 8일의 매달 8일은 전교생을 교정에 모아서 정렬시키고 '황국신민의 서사(誓詞)'를 복창하고 교장은 '교육칙어(教育勅語)'를 엄숙하게 봉독을 하고나서 일본천황의 궁성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동방요배(東方遙拜)'를 하고 일본의 국가를 합창하였다.

전쟁물자가 궁핍하던 그들은 집집마다 사용 중인 유기와 심지어 제기까지도 앗아가고 추수가 끝나면 공출이란 명목으로 할당량을 못 채우면 가택수생으로 버가마니를 뒤져서 강제로 훔어갔다. 그리고 만주에서 들여 온 대두박과 수수로 배급 주어 주린 배를 채워야 했다.

우리말과 글과 성 까지도 빼앗은 황민화교육

초등학생인 우리들에게도 송탄유의 원료가 되는 소나무의 기름이 박힌 관솔과 사철나무의 씨앗을 할당하여 수집하였다. 운동화는 한 반에 열 켤레 정도가 배급이 나오면 5대1의 경쟁으로 추첨하여 당첨의 행운이 잡히면 이 운동화는 선반 위에 모셔(?)놓고 명절 때나 신고 평소에는 벗짚으로 엮어 만든 샌들 모양의 일본어로 ‘와라지’와 개다(바닥에 두 개의 굽이 달린 일종의 나막신)를 신었다. 어디 그 뿐이랴! 교과과정의 공부에 우선하여 근로동원이라 해서 니노미야긴지로우(二宮金次郎)의 나무지게 지고 독서하는 동상을 쳐다보면서 운동장을 개간하여 땅콩이며 고구마를 심어서 가꾸고 길렀다. 동요보다도 일본의 군가를 합창하면서 우리는 황국소년으로 자라났다. 1945년 8·15 해방!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해방의 그 날 작은 면소재지인 우리 고을의 젊은 청년들이 일본국기인 일장기에 먹으로 태극과 4괘를 그려 넣어서 만든 태극기를 손에 손에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맨 먼저 몰려가서 때려 부순 곳이 일본인들의 신앙의 대상인 신사(神社)였다. 10여 가구의 일본인이 살고 있던 우리 작은 면에 신사와 교실 두 칸의 일본인 소학교가 있었다. 그날 기세가 등등하던 일본인들이 벌벌 떨면서 겁을 집어먹은 표정을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해방의 기쁨으로 춤을 춘 것도 잠시였다. 이 어인 일인가? 일본 놈들은 물리갔지만 38선을 그어 놓고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를 하였다.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봐도 수궁할 수 없다. 독일처럼 전쟁을 일으킨 당사국인 일본을 38선이나 48선으로 양단하여 전승국인 미국과 소련이 진주해야 도리에 맞는 일이 아닌가 말이다. 왜 아무런 전

쟁의 죄가 없는 우리 한반도를 양단한단 말인가.

해방의 기쁨과 동시에 찾아 온 국토양단의 비극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황국소년으로 자란 우리는 한글문맹으로 새로 우리글을 배워야만 했다. 1945년 8·15해방에서 60년 전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이 선포될 때까지의 3년 동안의 미군정기의 혼란상을 중학생인 필자가 고향인 작은 면소재지에서 일어 난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상을 엿보고자 한다.

해방직후 각종 단체의 간판이 몇 개씩이나 내 걸렸다. ××동맹은 좌익계이고 ××회나 ××연맹은 우익계였다. 이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골백성들을 상대로 세 불리기에 경쟁이 붙었다. 선전과 선동은 좌익계가 훨씬 집요하고 우세하였다. 해방직후의 당시에는 대로변에서 ‘적기가(赤旗歌)’를 소리높이 부르면서 좌익계가 활개 치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1946년의 3·1절, 좌우익이 따로따로 기념행사를 하고 나서 성내 큰 길에서 피를 흘리는 집단 육탄전이 일어났다. 좌우의 갈등은 증폭되어 순후한 시골민심은 오간데 없고 오손도손 이웃의 인정과 사랑도 사라지고 말았다. 이조시대의 4색 당쟁의 응어리를 대물림하면서 모여 사는 집성촌이 많았다. 심할 경우 통혼은 물론 왕래도 삼가는 사이였다. 그리하여 김씨가 좌익을 하면 이씨는 무조건 우익 편에 서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1947년 전후에 좌익의 활동은 자취를 감추고 극렬분자들은 월북을 하거나 산으로 지하로 숨어들어서 이른바 공비(共匪)가 되었다. 중학생들까지도 좌우익으로 갈라져서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면 교실에 좌익계열의 뼈라가 뿌려져있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3·8선으로

남북의 분단도 역울한데 이념의 갈등과 동족상잔의 비극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아닌가.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은 된다, 안된다로 국론이 분열되어 옥신각신하다가 드디어 1948년5월10일에 사상 처음으로 제헌국회의원선거, 7월17일에 헌법 공포,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탄생하였다. 올해로 대한민국은 환갑을 맞이하였다.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대한민국의 파란만장한 지난 60년 세월을 되돌아보니 한마디로 감개무량하다.

기구한 운명의 대한민국의 파란만장한 출범

황국소년으로 자란 우리가 해방덕분에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미군정하에서 민주주의교육이란 말을 처음 들었고 학기도 미국처럼 9월 학기에 학제는 6:6:4로 변경이 되었다가 6·25전쟁 중인 1951년에 3월 학기에 6:3:3:4학제로 바뀌었다. 필자는 구제 중학교 4학년 때 6·25전쟁이 발발하였다. 신생 대한민국이 겨우 2년 만에 자리를 잡아가던 무렵에 일어난 전쟁이었다.

대한민국 60년사에서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을 들라면 6·25전쟁이다. 아니 우리나라 5천년 역사를 통해서도 인적 물적인 희생면이나 전쟁의 규모에 있어서 6·25전쟁은 그 제1위에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으로 필자는 믿는다. 6·25전쟁이 일어난 지도 58년의 세월이 흘렀고 6·25전쟁을 체험한 세대들이 지금 얼마나 살아남아 있을까. 3년 동안의 산하를 피로 물들인 처참한 전쟁을 치르는데 전사(戰史)에 기록된 격전지 중의 한 곳이 포항전선이다. 18세 전후의 중학생들에게 어디서 그런 애국심이 솟아났을까. 군번도 없이 단 하루의 훈련도 받지 않고 총을 들고 전선에 투입되어 산화한 학우들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

하다. 51년 봄에 부상한 나는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사실만으로도 행운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60의 환갑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헌정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자. 건국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12년과 박정희 대통령의 18년의 1인 장기집권 기간과 이른바 신군부의 8년에 1960년 4·19학생의거로 내각책임제의 민주당 정권 2년을 합하면 환갑나이의 3분의 2인 40년을 차지한다. 헌법의 중단은 몇 번이며, 헌법의 개정은 또한 몇 차례였던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이 지구위에는 우후죽순처럼 수많은 신생국가가 탄생하지만 대한민국과 같이 격동과 혼란 속에서 한강변의 기적이라 불리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 가까운 이웃 일본은 점령군이 만들어 준 헌법을 단 한 차례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쓰면서 참담한 폐허에서 오늘의 경제대국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룩하였다.

헌정 60년에 비정상집권기간이 40년을 차지

필자가 지나 온 헌정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그 공과를 따지자고 이 글을 쓰는 게 아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도, 현재가 없는 미래도 없다. 공과를 초월하여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으로 반성은 할 수 있을 지언정 역사를 되돌리거나 ‘독재’라는 말 한마디로 허물과 죄를, 죄를 뒤집어 씌워 부정할 수는 없다.

60년 전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찬란한 문명이 꽃피고 있는 새 천년을 맞는 21세기에 대한민국은 시간의 흐름에 한 획을 긋는 60갑자에 제17대 대통령을 새로 뽑고 새 정부가 출범을 하였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걸어 온 이 촌로는 그야말로 노파심에서 새 정부에 당부하고자 한다.

1987년의 민주화 이후 20년 동안 네 분의 대통령

을 우리 국민들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헌법에 의해서 교체되었다. 정치적으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엄청난 성장으로 평가된다. 공명선거의 제도적인 확립은 정보화의 눈부신 발달과 국민들의 교육수준 및 경제력의 향상이 크게 뒷받침 되었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자유당시절의 피아노표, 올빼미표, 막걸리표, 고무신표 등의 낱말은 이제 역사속의 화석이 되었다.

대한민국 60년의 역사연표를 살펴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만큼 굵직굵직한 사건의 연속이다.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오늘날 이처럼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 필자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세계인이 주목하는 '한강변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 경제논리로는 나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반도의 우리 겨레는 5천년의 역사를 쌓아 오면서 연면히 핏속에 흐르는 민족정기(民族精氣)의 탓이라고 믿는다. 분단의 악조건을 무릅쓰고 말이다.

군자는 근본을 힘쓴다. 근본이 서면 길이 열린다.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에게 몇 가지 바란다. 한 가지 전제해 둘 일은 이 나이가 되도록 필자는 단 한번이라도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실이 없다.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을 당선시킨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은 내 귀에 몹시 거슬린다. 전임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이나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을 싸잡아서 지나치게 폄하하는 말이다. 훗날 공과는 역사가 심판할 몫이다. 이미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내어 건 공약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기에 압도적이 표차로 당선된

것이다. 우리는 이번 선거로 다섯 분의 전임 대통령을 뒤흔게 되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지만 공과를 따지기 이전에 국민적인 예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재세중인 대통령만이 아니라 건국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고인이 되신 모든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우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경제지표를 올리는 일 이상으로 법질서의 확립과 아울러 국민적인 화합을 이끌어 내고 도덕수준과 행복지수를 높여 주기를 바란다.

남북문제는 우리민족 자존의 최대의 과제이다. 어느새 분단 63년의 세월이 흘렀다. 아직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치상태에 놓여 있다. 자유롭게 오갈 수도 없고 편지를 주고받을 수도 없거나와 63년의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도 못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라는 쇼를 당장 집어치우고 서로의 자유왕래의 실현을 먼저 이끌어내 주기 바란다. 통일되기 전의 독일도 지금의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도 이렇지는 않았다. 대한민국의 여권을 들고 이 지구상에 갈 수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비료와 쌀 지원에다 무슨 무슨 경제협력이다, 핵폐기 문제다, 6자회담이다, 금강산관광이다 하고 밀고 당기는 흥정만 하지 말고 자유왕래의 보장을 우선적으로 내 세워 협상 타결하여 주기 바란다. 오늘의 농민과 농업과 농촌은 빈사직전에 놓여있다. 농촌을 이대로 방치해 두고 경제지표만을 끌어 올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농민은 민족의 뿌리이며 농업은 나라의 바탕임을 이 대통령 스스로가 신념으로 확립하여 주길 바란다.

이 글을 끝맺으면서 필자의 바램을 통 털어 흔히 인용되는 논어의 한 구절을 덧붙여서 대신하고자 한다. '君子는 務本이니 本立而道生하나니...' (군자는 근본을 힘쓴다. 근본이 서면 길이 생겨난다)㉞